

여러분은 무엇을 찾아서 헤멘 적이 있습니까? 어찌보면 이 세상은 방황의 연속입니다.

때론 이 헤맴은 과거로 돌아가 꿈속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깨기도 하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미래의 행복(幸福)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의 현실속에서 경제적(經濟的)인 자유(自由)와 사랑할 만한 신분(身分)과 명망(名望)을 찾기 위해 골몰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더 재미(FUN)있고, 쾌락의 극치(極致)를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것을 찾아 벌, 나비처럼 산천(山川)을 해메입니다. 한순간의 만족함은 늘 불만족으로 변합니다.

바울도 일종의 Seeker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찾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 10:1절이 잘 설명합니다. “형제들이,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그가 찾는 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의 찾음은 전력을 다 한 찾음, 몸과 마음, 온 영혼을 다한 찾음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롬 9:1-3절에서 이 점을 밝힌 바 있습니다.

“1,2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은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願)하는 바로라.”

오늘도 바울은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관점이 다릅니다.

### I.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쉽지 않은 이유를 진단(診斷)합니다 (1-4)

놀랍게도 그 원인(原因)은 전혀 뜻밖의 요인이었습니다. 병명은 <하나님께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구요? 하시겠죠? 맞습니다. 열심(熱心)이란, 어떤 일에 온 정성을 다하여 힘쓰인데.. 열심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열심이란 단어 영어는 zealous인데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zēlon의 의미는 “끓어오르는 열기(heat)”를 뜻하는 zeō(끓이다) 동사에서 유래합니다. 무엇이든지 끓는 것은 좋죠 그런데 그 물을 끓는 정도가, 적당하여야 합니다. 과도하면 그 물에 데기도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열심의 도(度)가 넘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막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一般的)으로 열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도 마냥 좋은 것은 아닌 모양입니다. 바울사도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2.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이 말씀은 열심도 좋지만, 열심 이전에 올바른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언젠가 Gym에서 운동하는 이야기를 드렸었죠? Gym에 가면 많은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초보자는 처음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이 새로워 이것 저것 다 하게 됩니다. 아령만 하더라도 무게에 따라 얼마나 종류가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도 초보자는 무리를 합니다. Trainer가 가입자에게 무엇을 권하는지 아십니까? 근력운동은 12번씩 2번만 기계를 몇 가지를 바꾸어가면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루는 하고 다른 날은 쉬고.. every other day에 근력운동을 하라고 합니다. 이유? 근력운동은 근육을 췄어주는

것이기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running machine은 날마다 하더라도 근력운동은 하루씩 쉬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지식에 바탕을 둔 열심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열심 때문에 몸이 망가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사실 바울이 변화되기 전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정말 열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메섹까지 원정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날로 말하면 외국까지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려 다닌 열성분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것을 <자기(自己) 의(義)>라고 합니다.

2하.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율법을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바울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자기의’란 =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의로워지려는 행위주의의 입장입니다. 이 말이 그럴듯해요. 양심에 부합한 듯 보이기도 하지요.

설득력도 있어요. 모든 사람을 줄 세우기도 좋죠. 정직한 행위, 선행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 잘못된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외(意外)이죠?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키라고 말한 것도 하나님입니다.

잘 지키면 축복(祝福)하고, 안지키면 저주(咀呪)를 받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죠? 곁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그것이 의(義)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사람을 의인(義人)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의인될려고 노력하며 삽니다. 그런 의로운 행위를 하는 인간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의 긴 수련의 과정을 거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인간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인간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은 더 멀리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초등학문(初等學文)이라고 했습니다. the basic principles of the world

갈라디아 4:1-6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아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툼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천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 노릇 하였더니,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지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율법아래 두신 것을, 초등학교에 비교한 것입니다. 그런데 늘 초등학교만 다니면 되겠습니까? 때가오면, 고등학교, 대학교를 가야하지요. 그 때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시는 때와 일치합니다. 보십시오. 그의 오심에 대해서 바울이 표현한 것을, 때가차매 <여지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의 시대는 이 율법주의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아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율법의 종지부를 찍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로마서 10:4절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율법아래오셨지만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위의 다른 법으로 율법위에 군림하신 것입니다. **the end of the law** (KJV) **culmination of the law**.(NIV) 예수님이 율법의 최고점, 최고 점에 계십니다.

## II. 바울은 구원의 길이 멀리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5-8)

5. **모세가 기록하되,** ㄱ)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6.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ㄴ)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려는 것이요 7.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라려는 것이라.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ㄷ)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바울사도는 구원문제를 말함에 있어서, 모세를 인용(引用)하고 있습니다.

5절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6-8절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둘 다 사는 방법이 다릅니다.

율법의 의를 행하려는 사람은, 의의 확신(確信)과 의의 보장(保障)이 없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끝없는 율법의 정죄(定罪) 가운데, 긴장(緊張)하며 살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떨어질까 불안해하며 삽니다. 수많은 말씀을 들으며, 희망고문(希望拷問)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헷갈리는 듯합니다. 6-8절을 읽어보면, 헷갈리시지요?

저도 그래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무저갱에 내려 가지도 말라> 뭔 말인지 말입니다. 그것은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말입니다. UP DOWN 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도 구원의 확신이 주가처럼 오르내린다는 말입니다.

저는 바울사도의 ‘구약사랑’을 봅니다. 그는 신명기 30장의 표현을 가지고 옵니다.

신명기 30:11-14절을 봅시다. “11 네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13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백성에게 한 <토라의 명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을 토라라고도 하지만,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토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세는 토라를 말하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워하지 말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밖에 갈 정도로 힘들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당시의 시대(지금부터 3500년전)의, “하늘”과 “바다 밖/바다 건너편”의 비유는, 유대 전통에서는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곳, 인간이 접근하기 어려운 극단적 거리”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구약 시편 139편, 아모스 9:2-3, 욉기 28장에도 나타납니다.

“인간이 도저히 닿을 수 없는 극단적 자리”를 가리곁던 이 하늘과 바다 밖의 비유는,

토라와 하나님의 말씀이 ‘저편’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입과 마음에 있다”고 선언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달하고 싶은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싶은가? 멀리 갈 것 없다. 말씀이 하나님이 아니냐고 하는 셈입니다.

이 모세의 비유를 바울은, 의의 복음(福音)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라는 했죠? 이 말씀도 특이합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얻는 의의 관점에서 볼때에>라는 말인데, 믿음의 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인화된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구원받기 위해서 온 천지를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올라가거나, 무저갱(음부)에 내려가 봐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옆에 구원의 길이 있는데 왜 그리 방황하고 고생하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얻기 위해서 믿음만 가지면 되는 데 뭐 그리 방황하느냐나는 말입니다.

멀리가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를 강조하며 평생 빙빙돌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8.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과 여러분 마음안에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멀리서 찾지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 얻기 위해 하늘과 지옥에 오르내리는 수고와 고행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구원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 III.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過程)을 말합니다. (9-10)

9. 네가 믿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主)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에서 요구하는 구원의 과정은 세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예수님을 주(主)라고 시인(是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하든 주이십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36절에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主)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선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2:9-11에서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꿇으며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마지막 심판 때의 모습입니다.)

로마서 14:8-9에서도, 우리가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여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강조합니다.

## 2) 그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고전 15:1-8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계비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로마서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 3)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是認)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입의 통합(統合)입니다.

어쩌면 3번이 중요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10:9-10의 “시인하다”(όμολογέω)는 본질적으로 개인적·내적 믿음이 입술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공적인 신앙 고백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문맥상 자연스럽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숭배 상황 등을 배경으로 보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은, 사회·공동체 앞에서의 위험을 무릅쓰고 고백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부인하지 않는 용기 있는 고백을 말합니다. 아마도 로마황제가 주인 세상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순교도 각오해야 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고백을 말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2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됩니다. 고전1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主)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주라는 고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에 대하여, 빌립보서는 말합니다.

빌립보서 2: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20-21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마무리합니다.** ‘열정(熱情)’에 해당하는 영어단어가 있습니다. 인뚜지애즘 enthusiasm입니다.

몇 가지 성경번역본에서는 (New Living Translation, Amplified, Weymouth New Testament 등에서) 2절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enthusiasm for God”으로 번역했습니다.

영어 enthusiasm은 그리스어 ἐνθουσιασμός(enthousiasmos)에서 왔고, 이것은 ἐν(en)=“안에(in)”+ θεός (theos 하나님)”의 결합입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는 “신 안에 있다 / 신이 안에 있다”, “신에게 사로잡힌 상태”라는 뜻이며, “하나님(신)이 그 안에 들어 있다”는 개념이 단어 뿐리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열정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정은 실수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열정을 가지고, 방황하지 말고 말씀안에 거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자면,

I. 바울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쉽지 않은 이유를 진단(診斷)합니다 (1-4)

그것은, 헛된 열심히 문제였습니다. 행위의 헛된 열심히 방황하지말고 믿음의 의를 받아드리고 자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II. 구원의 길이 멀리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5-8)

빙빙 돌아가지 말고 바로 말씀을 통해 주 예수그리스도에게 나아갑시다.

III. 구원의 구체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9-10)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으로 공개(公開) 시인(是認)합시다.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우리로 구원위해 온 세상을 헤메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받아드리고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